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천유진 아홉살 <sup>의</sup> 어느날

오늘 아버지와 인라인을 탔다. 처음에는  
몇번을 넘어져도 아버지의 가르침에 잘  
타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. 점심에는  
석환이랑 밖에서 놀았는데 나는  
인라인을 탔고, 석환이는 자전거를 탔다.  
저녁에는 석환이가  
“나 할머니 집에 가야 돼”라고  
말한 뒤에 떠나 버렸다.  
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먹은 후  
정말 신은 숙제를 시작했다.  
많이 놀아서 행복했다.